

01 교회소식

그 뜻 안에서~

2019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03 송년특집

믿음 위에 우뚝 서 복음을 전하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사역에 힘쓰는 가운데 만민의 이름으로 지성전, 지교회, 교단이 설립되는 등 열매 맺는 세계 선교.

04 송년특집

주님의 위로와 축복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 치료와 응답, 축복이 가득했다.

만민뉴스

제911호 2019년 12월 2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9 성탄 점등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려는 연합성가대의 찬양과 금관앙상블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난 12월 13일(금) 오후 9시 50분, ‘2019 성탄 점등식’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GCN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으며, 예능위원회 솔리스트 서승원 집사와 환돌성가대 이시은, 박예원 아동의 특송 후, 당회장 직무대행인 이수진 목사의 성탄 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한편,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7시에는 성탄 전야 예배 후 축하 행사가 있으며,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 2019년 만민뉴스가 선정한 12대 뉴스 】

1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 은사집회

올해 1~5월에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야예배 2부 시 ‘은사집회’가 있었다. 이로써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강사 이수진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터넷과 GCN방송을 통해 동참한 성도들이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며 심근경색, 당뇨병, 자궁근종, 우측마비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은혜와 사랑에 감사, ‘Thank you 만민!’ 캠페인

전 성도를 대상으로 ‘Thank you 만민!’ 캠페인이 지난 4월에 시작하여 약 5개월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인내와 소망으로 장차 이를 축복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교회’라는 첫 번째 주제 아래 ‘처음 그리고 설렘’, ‘감사해요, 나의 주님’이라는 부제, 그리고 ‘우리는 만민입니다’라는 두 번째 주제 아래 ‘만민을 만나 변화된 나’, ‘만민을 사랑합니다’ 등 부제가 주어지면 성도들은 만민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치유되고 변화받은 행복한 간증들을 온라인 또는 카드에 적어 주님의 소중한 지체들과 나누었다. 응모된 간증들은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으며, 각종 예배나 모임 시 소개돼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8~10)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신 10:13).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만큼 빛의 자녀, 의의 자녀, 선에 속한 자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 있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의가 없다면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알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율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 무엇을 하라, 지키라, 버리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죄를 버리라, 미워하지 말라 등의 계명들을 총칭해 율법이라 하지요.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곧 영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법칙, 곧 이 공의를 기준으로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귀찮더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부모를 사랑해 기쁘게 해 주려 하는 자녀는 당부한 대로 명심하고 지키지요. 곧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순종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3.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응답과 축복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타락해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요일 2:16).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좇아 범죄하는 사람의 앞길에는 고난과 재앙이 임하고, 결국에는 사망이 기다릴 뿐이지요(롬 6:21).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일 3:21~22). 곧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롬 6:22 ; 살전 5:23).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기 원하지만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죄를 지은 만큼 원수 마귀에게 내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만큼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는 등 시험과 환난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철쭉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등불만 있으면 넘어질 염려가 없듯이 어떠한 환

경 가운데서도 항상 지킴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율법을 온전히 행해

힘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위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셨지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외적인 형식에만 치우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판단 정죄하고, 오히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였지요.

그들은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에 철저하게 율법의 형식을 준행했어도 그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고전 13:2~3).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행한 판단과 정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행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을 버림으로 깨끗하고 변함없는 영의 마음으로 일궈야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지요. 곧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교회(오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30 PM |
|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다녀오실아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사별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3

러시아에 이어 몰도바에 '만민' 교단 설립

지난 3월에는 동유럽에 위치한 몰도바만민교회가 복음주의 교회 연합 교단 '만민'으로 정부에 정식 등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는 2018년 12월, 러시아에서 기독 복음주의 종교단체 복음주의 교회 연합 '만민 미니스트리'가 법무부에 교단으로 등록된 데 이은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 폭넓은 선교 사역을 이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몰도바만민교회는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옥' 설교를 들은 한 청년이 변화되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주변에 전함으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후 지교회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교단을 이루는 축복까지 받았다.



4

감동, 부활의 소망을 더해 준 부활절 공연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지난 4월 19일 금요일야예배 2부 시, 부활절 공연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팝박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등을 재연해 줌으로 마치 2천여 년 전에 함께 있는 듯한 감동을 선사했다.

성도들은 물론 이스라엘, 프랑스, 대만 등 해외에서 참석한 목회자 및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확실한 소망을 더해 주었다.



5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와 감사장 수상

지난 4월, 우리 교회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작구청으로부터 각각 표창패와 감사장을 수상했다.

평소 우리 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 복지 발전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동작구 <2019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6

인도네시아 목회자 120여 명 우리 교회 방문

지난 5월 4~5일, 인도네시아 목회자 120여 명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직접 체험하고자 방문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 듣는 한편,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잘 걷지 못하던 마르타 덴딩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뒤 잘 걷게 되는 등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와 더불어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참석, GCN방송 방문, 다니엘철야 기도회 참석 등의 일정을 통해 목회 사역의 새로운 비전을 가졌다. 특히 저녁예배 시에는 약 30명의 목회자들이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특송함으로 은혜와 기쁨을 안겨 주었으며, 총괄 인쇄자 카토우츠 카라우완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앞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드리안 사로인송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 충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도 이재록 목사님처럼 권능의 증들로 변화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7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0주년 기념, 찬양페스티벌

지난 6월 8일(현지 시간), 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크리스탈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이 공동 주최한 국제적인 행사 '2019 이스라엘 찬양페스티벌'에 예능위원회가 초청받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재록 목사 초청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개최 1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려 더욱 뜻깊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으며 2007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 2009년에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따르는 표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부흥하여 크리스탈포럼을 중심으로 매년 찬양 페스티벌과 청소년 캠프, 부부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8

폭발적 권능의 역사로 충만했던 만민하계수련회

지난 8월 5~7일, 만민하계수련회가 해외 28개국에서 총회장과 주의 종 및 성도들이 참석하고 GCN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방송 되는 가운데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렸다.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강사 이수진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시력, 청력이 회복되고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었으며, 휠체어를 의지해 참석한 성도가 걷게 되는 등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특히 GCN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서 많은 성도가 동참하였는데, 의식불명이던 사람이 이날 아내의 도움으로 기도 받던 중 소생하는 등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접수되었다.

둘째 날에는 최적의 날씨 속에 하나 되었던 체육대회, 신실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찬양했던 캠프파이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9

주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했던 교회 창립 37주년

지난 10월 13일 주일, 국내는 물론 해외 18개국에서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를 가졌다.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영어, 러시아어, 불어 등 총 9개 언어와 수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기념 예배 후에는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Amazing Grace'(부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축하 공연이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져 기쁨과 감동을 더했다.

이날 공연은 1982년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시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달려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였다. 이와 더불어 찬양전문 닥시오케스트라와 연합성가대 등 200여 명의 출연진을 비롯해 공연전문 스태프들이 조명과 음향, 영상, 특수효과 등을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10

방송, 유튜브 통해 열매 맺는 복음 전파

엔라씨, TBN러시아 등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채널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됨은 물론 권능의 역사까지 체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만민의 사역을 전함으로 해외 곳곳에 가정교회, 지성전, 지교회 세워져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힌두교 국가 인도에서 가정교회들이 많이 늘어 현재 약 70개에 달하고 있다. 델리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인 'GCNTV HINDI' 시청자들은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찬자 기도를 통해 응답과 치료, 축복을 크게 받아가고 있다고 간증한다.

이러한 흐름은 중남미 대륙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콜롬비아만민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미국, 멕시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스페인, 중동, 이탈리아 등 30~40여 곳에서 접속하고 있다. 그 결과 지성전이 콜롬비아에 4개, 베네수엘라에 3개, 멕시코에 2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 각각 1개씩 생겨났으며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에도 가정교회와 지교회가 탄생했다.



11

170여 명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치료 무상 지원

우리 교회는 지난 37년간 '구제'를 항상 기도제목 중 하나로 삼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생활비 보조 및 밑반찬 지원, 장학금 지급, 장례 절차 지원, 외부적으로는 재소자들을 섬김, 이·미용 봉사, 김장나누기, 관공서 쌀 지원 등으로 주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특히, 구제위원회에서는 작년 전반기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원 속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무상으로 치과 치료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마무리되어 총 170여 명이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등 치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니 몸도 건강해지고 삶의 행복도 되찾았다는 간증이 넘친다.



12

아프리카, 중남미 등 멈추지 않는 세계 선교

지난 37년간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써온 우리 교회는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의 시기에도 세계 선교의 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와 함께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세계 곳곳에서 개최돼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다.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몽골 등에서 수많은 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가 하면 각종 불치, 난치병

을 치료받는 등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특히 올해 괄목할 만한 일은 세 차례 베네수엘라 선교 출장을 통해 340여 개 교회가 만민의 협력교회로 가입하는 폭발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일 금요일아침예배 2부 시에는 '2019 세계 선교의 날' 행사를 가짐으로 그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해외 지·협력교회 주의 중 및 선교사, 성도들을 격려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문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